

시로 전국 교육정책 동향 수집·분석

전북교육청, ‘오늘의 교육동향’ 서비스 운영… 교육부·시도교육청 보도자료 수집, 직원이 직접 개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동향을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타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AI가 분석하는 ‘오늘의 교육동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늘의 교육동향’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신규 보도자료 가운데 정책 변화와 업무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AI가 선별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북교육에 적용 가능한 방안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업무지원 도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정책기획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기간 모두 384건의 보도자료를 수집해 이 가운데 주요 교육동향 90건을 선별·분석했으며, 하루 평균 18건의 정책 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별도의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담당 직원이 생

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범운영 기간 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I) 사용료는 총 1,349원으로, 교육동향 1건을 분석하는 데 약 15원의 비용만 소요됐다. 평일 기준 연간 245일 운영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약 6만6,000원 수준으로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북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오늘의 교육

동향’을 활용해 전국 교육정책과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북 교육 정책 수립과 기존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직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필요한 도구를 직접 개발한 사례”라며 “적은 비용으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교육정책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캠프인재개발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재산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산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 실무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하반기 재산담당자 맞춤형 교육

법령·온비드 활용·사례중심 교육으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캠프인재개발원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재산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산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관리 전문기관인 캠프인재개발원에 위탁해 진행되며, 담당자들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실무를 비롯해 온비드 시스템 활용 방법,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변상금 관리, 재산 실무교육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재산 실무교육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주요 업무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업무 이해도와 실무 대응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홍국숙 재무과장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재산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위탁교육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교육공무직원 직무 전문성 키운다

전북교육청, 역량강화 연수

소통·청렴·실무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전문성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맞춤형 연수를 운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강당에서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신규 및 재직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에는 근무 경력 1년 미만인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급여 등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각종 수당과 퇴직급여제도, 휴직 및 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업무를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해 신규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관계를 바꾸는 소통의 힘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동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방법과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는 소통 전략 등을 공유하며 조직 내 협업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5일과 6일에는 재직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렴교육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수 마지막 날에는 천호성 교육감이 직접 현장감을 찾아 교육공무직원들과 소통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현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교육공무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며 “이번 연수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동료들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필요’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북교육청, 대입 수시 1대1 집중상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400명 대상 맞춤 컨설팅

진학전문가 5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앞두고 고3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학 상담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주 진로진학센터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등 6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대면 집중상담’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9월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3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전주 진로진학센터는 평일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9시 20분까지 운영하며, 주말인 8월 29일과 30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6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규모는 전주 진로진학센터 280명, 6개 교육지원청 120명 등 모두 400명이다. 상담은 1인당 40분씩 진행되며,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진학상담교사 50여명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25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로 구성됐다.

상담 신청은 전북 진로진학 누리집의 ‘수시 대면 집중상담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상담 희망일 기준 4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 기간 중 1인 1회 신청할 수 있다.

전주 진로진학센터는 화차별 사전 예약자 4명과 함께 현장 접수 1명을 별도로 운영해 예약하지 못한 수험생도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참여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상담 시작 10분 전까지 접수증을 지참해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지역별 상시 대면·화상 진학상담도 집중상담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된다.

/오상근기자

‘다시 생각해 보는 청렴의 가치’

전북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편 선정
포스터 등 학생·교직원 234점 출품… 청렴문화 확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20편을 선정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청렴 소트폼 영상과 청렴 N행시, 청렴 이모타론, 청렴 포스터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모두 234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20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학생들의 참신

한 아이디어와 교직원들의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소트폼 영상 부문에서 ‘우리가 만드는 청렴!’(가평초병설유치원 김유리 교사 외 6명), N행시 부문에서는 ‘청렴은 나로 시작! 청탁은 NO로 시작!’(유아교육진흥원 고지혜 주무관), 이모타론 부문은 ‘청렴 생활 바르게, 바르게!’(전주전라초등학교 이은지 교사), 포스터 부문은 ‘청렴을 비추는 학교, 미래를 비추는 전북교육!’(김제지평선중학교 김채나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수상작들을 앞으로 청렴교육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오는 18일 도교육청 본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이 교육가족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



포스터 부문 최우수작 ‘청렴을 비추는 학교, 미래를 비추는 전북교육’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가최할 예정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공모전이 교육가족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수상작들이 전북교육 현장 곳곳에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 실험실 창업기업, AI 신약개발 전환 ‘본격’

휴스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기업 협업 ‘다온다 프로그램’ 지원과제 최종 선정

전북대학교 실험실 창업기업(휴스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정환·전북대 생명과학과 교수)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다온다 프로그램’ 지원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전 과정에 접목하는 ‘AX(AI Transformation)’ 기업 전환에 나선다.

다온다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 프랑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다소시스템즈(Dassault Systemes)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내 유망 창업기업이 다소시스템즈의 기술과 전문 인력,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천연물 소재 기반 신약 개발 전문기업인 휴스바이오사이언스는 그동안

CRISPR/Cas9 DNA Fire 육종 기술을 기반으로 햄프와 상추 등 식물 품종을 개발해왔다. 특히 햄프 신품종 개발 과정에서 대조군 대비 THC 함량을 85% 낮추고 CBD 함량을 200~400% 높인 결과를 KOLAS 공인 성적서로 확인받았다. 관련 특허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도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BIOVIA Discovery Studio 기반의 3차원 분자모델링과 다중 타겟 도킹 시뮬레이션 등 in silico 신약 설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QSAR·ADME 예측을 포함한 AI·머신러닝 기반 설계 역량도 함께 확보해 수면 개선, 항비만 신경계 질환 등을 겨냥한 천연물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AI 기반 설계 기술은 후보물질 탐색과 효능 예측, 개발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꼽힌다.

휴스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기술 이전(L/O), 일본·미국 시장 대상 B2B 원료 수출, 국내 건강기능식품 공급 등의 3대 사업화를 축으로 삼고 있다.

이정환 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AI 기술을 신약 개발 전 과정에 접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AX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라이선싱 확대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성장 속도를 높이고, Pre-Series A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전대·산업인력공 전북, 지역 인재양성 ‘맞손’

취업·현장실습·재직자 교육 협력 확대

전주기전대학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기전대학 혁신융합캠퍼스사업단은 6일 대학 본관 3층 A1D 중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와 지역 전략산업 발전과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주기전대학 조희천 총장과 조덕현 부총장, 기익환 처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박정 지사장, 신정현 부장, 이종봉 부장, 김용준 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일

자리플러스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회원기업을 연계한 취업 및 현장실습 확대를 비롯해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실무형 인재 양성,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와 평생직업교육 운영, 산학협력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형체제를 구성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산업체와 대학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인재양성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기전대학은 1973년 개교 이후 진리 탐구와 기술 연마, 협동 봉사



를 교육이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 최근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사업을 통해 2차전지소재부품과를 신설하고 K-친환경모빌리티 실습실을 구축하는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산과 국가지역 운영, 기업과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해외취업 및 외국인 고용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이다.

/오상근기자